

소백산 품에서 시름을 잊다

강원과 경북을 아우르는 해발 1천376m의 소백산 인근 지역은 한여름에도 서늘한 곳이 많다. 내륙지역인 영월과 영주는 독특한 숨은 매력을 가진 고장들이다.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공간도 많아 팬데믹 시기에 나 홀로 또는, 가족끼리만 떠나 한적한 휴가를 즐기기에 좋다.

글·사진 성연재 기자



영월로 떠나니 나를 찾지 마세요

강원도 영월은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다. 더불어 드라마틱한 역사의 배경이 된 유적지들과 다양한 박물관이 산재해 있어 혼자 여행을 떠나도 절대 심심할 일이 없는 곳이다. 맛난 음식도 빼놓을 수 없다.

단종의 한서린 청령포와 장릉 그리고 선돌

영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영월로 유배됐다가 이곳에서 숨을 거둔 비운의 왕 단종(端宗, 1441~1457)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배지는 주로 남쪽이었다. 저 멀리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제주부터 전라권 섬들이 대부분이다. 단종은 특이하게도 내륙인 영월로 유배를 갔다. 명승 제50호인 청령포는 3면이 서강에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나머지 한쪽은 절벽이 가로막힌 섬과 같은 곳이다. 배를 타야만 출입할 수 있다. 이곳에 가면 높이 30m의 소나무 군락이 펼쳐져 있는데, 그 숲속에 단종이 머물렀다는 단종어소(御所)가 재현돼 있다.

청령포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황혼 녀이었다. 붉게 물든 서강을 배경으로 낙장송이 우거진 곳을 바라보니 가슴이 저려온다.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긴 뒤 1457년 노산군(魯山君) 신분으로 청령포로 쫓겨온 단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단종은 영월에서 1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사약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 단종의 시신은 서강에 버려졌는데, 아무도 이를 수습하지 말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그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석양 아래 선돌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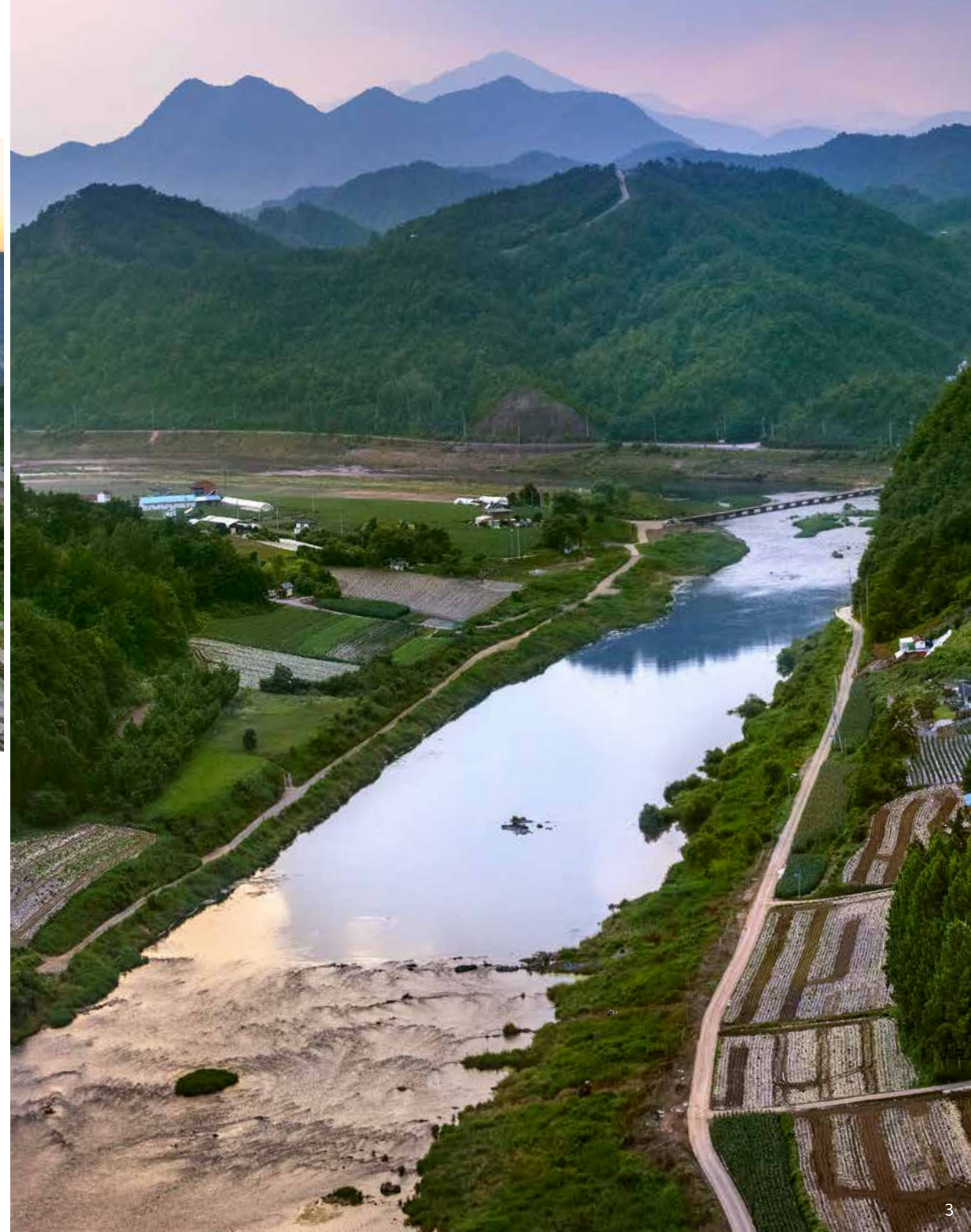
1



2

1 단종이 유배됐던 청령포 2 단종이 묻힌 장릉
3 선돌에서는 북면 문곡리 지역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엄홍도라는 호장이 한밤중 단종의 시신을 거둬 임시로 매장했다. 단종은 이후 영월읍의 장릉에 모셔졌다. 장릉은 조선왕릉 가운데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왕릉이다. 조선 시대 예법과 절차 등을 담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대부분 왕릉이 한양도성으로부터 10리에서 100리 사이에 마련되게 돼 있지만, 장릉은 예외다. 석양을 즐기기에 청령포만큼 좋은 곳이 선돌이다. 명승 제76호인 선돌은 영월읍 방절리 서강 강변에 있는 높이 약 70m의 기암으로, 절벽 아래로 서강의 푸른 물과 영월읍 방절리 날골마을과 남애마을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유배길 단종의 시신을 빼앗은 기암 괴석으로도 알려져 있다. 잠시 쉬던 단종이 우뚝 선 절벽의 모습이 마치 신선 같다고 말했다는 설이 내려온다. 청령포는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선정한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에도 올랐다.



3

문화로 깨는 마을 마차리

한여름에도 서늘한 동굴 마차리

영월이 한때 대표적인 탄광촌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월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강원도 최초의 광업소인 영월광업소가 북면 마차리에 문을 열면서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차리를 찾게 된 것은 몇 년 전 우연히 버스를 타고 이곳을 지나쳤던 기억 때문이다. 평창에서 출발한 직행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을의 풍경에 매료되었다. 분명 수십 년 전 건물인데도 리모델링을 통해

예쁘게 재탄생한 느낌이 들었다. 간판과 벽면도 깔끔하게 재정비돼 마치 유럽의 소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알고 보니 영월군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정비한 덕분이었다. 그때 수첩에 마차리라는 이름을 기록해 뒀다. 마차리는 1960~1970년대 3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났지만,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었다.



1 마차리 베이커리를 이끌어가는 청년들
2 쑥 카스텔라



수년 만에 다시 찾은 마차리는 더욱 깔끔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곳에는 주민들이 구성한 '황금마차 특화마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와 빵집이 있다. 협동조합은 청년들로 구성된 레드روز빈이라는 베이커리 브랜드에 그 운영을 맡겼다. 때마침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빵을 굽기 시작한 첫날이었다. 레드روز빈 한은경 대표도 내려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날 맛본 빵은 지역의 쑥을 활용한 쑥 카스텔라였다. 달콤쌉싸름한 쑥 카스텔라는 청년층은 물론, 장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듯 보였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차리의 도심재생사업은 게스트하우스나 상점 등의 일을 맡아 해줄 청년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한다. 이에 서울 롯데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는 레드روز빈은 청년 직원들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고, 마을 측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김현필 협동조합 대표는 “이렇게 서울에서 청년들이 내려와 베이커리를 운영하니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차리의 참모습을 보려면 한옥협동조합을 꼭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저렴한 가격에 지을 수 있는 한옥 샘플을 구경할 수 있다. 재료비 990만 원을 내면 본인의 힘으로 한옥 농막도 지을 수 있다. 대략 2주가량 일하면 농막 한 채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영월한옥협동조합의 포부는 야심차다. 이곳에 한옥 목수들이 머무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인 대목장 마을과 한옥연구소, 한옥 학교 등 한옥 문화 클러스터를 꾸밀 예정이라고 한다. 2주 동안 휴가를 내고 이곳에 와서 농막을 하나 지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한옥협동조합 아래쪽은 강원도탄광문화촌이다. 이 건물은 옛 영월광업소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박물관식으로 꾸몄다. 내부는 1960년대 탄광 지대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도록 모형들이 설치돼 있다. 탄광문화촌을 지나 5분가량 걸으면 갱도 입구가 나타난다. 예전 탄을 캐던 갱도를 그대로 재현해 깔끔하게 리모델링했다. 내부로 들어가면 시원하기 이를 데 없다. 지상천국이 아닌 '지하천국'에 온 것 같았다.



3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부
4 황금마차 협동조합 김현필 대표가 옛날 영월과 마차리, 정선을 오가던 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5 영월한옥협동조합에서 제작되는 농막
6 시원한 갱도 내부



1 젊은달와이파크에 설치된 최옥영 작가의 붉은 파빌리온
2 젊은달와이파크에 설치된 최옥영 작가의 목성

박물관 천국 영월

작은 동네 영월에는 박물관이 참 많다. 모두 22개로, 전국에서 소규모 박물관이 가장 많은 곳이다. 군청에는 '박물관계'가 따로 있고, 근무하는 인원도 5명이나 된다. '박물관 특구'인 영월군이 소규모 박물관들을 집중적으로 키웠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주천면의 젊은 달와이파크다. 이곳은 예술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으로, 원래는 술이 샘솟는다는 '주천'(酒泉)이라는 지명에서 시작된 술샘 박물관이었으나, 설치 미술작품 등이 들어서면서 박물관과 공방 등이 합쳐진 복합미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젊다는 뜻의 영어 '영'(young)과 한자 달 '월'(月)을 합쳐 젊은 달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마치 거대한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예술작품들을 즐기면서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옥영 작가의 설치미술 '붉은대나무'다.

금속 파이프를 연결해 마치 대나무 같은 느낌을 준 작품으로, 이곳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거대한 소나무 장작더미를 쌓아 올려 만든 최 작가의 설치미술 '목성'(木星)도 눈에 띈다. 원초적인 자궁의 힘, 사랑 등의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다음 찾은 곳은 한반도면의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이다. 박물관장 고명진 씨는 한국일보 사진기자 출신으로, 10여 년 전 우연히 영월군을 방문했다가 박물관 하나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평생 몸담아온 언론계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뭐라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영월에 미디어 관련 박물관을 열고 정착했다.





1 1987년 부산 문현로터리에서 촬영한 민주화운동 사진 앞에 선 고명진 관장 2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외경 3 고 관장이 기자 시절 썼던 카메라 4 학생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고명진 관장

그는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 사진기자로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1987년 부산 문현로터리 부근에서 전경들이 최루탄을 쏘는 순간, 뒷옷을 벗은 한 시민이 뛰쳐나가며 “쏘지 마라”고 외치는 장면은 너무도 유명한 특종 사진으로 남아 있다.

고명진 관장을 오랜만에 만났다. 그는 생활한복을 입고 밝은 웃음으로 맞이했다. 현장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현직 못지않은 왕성한 미디어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매달 지역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영월인’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일이다. 직접 뛰며 취재하고 편집과 교열 제본까지 혼자 힘으로 한다. 요즘도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에서 수많은 관람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말한다. 민주화운동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작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며 입이 함박만 해졌다.

그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영월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라디오스타’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 개관을 위해 2017년 라디오스타 협동조합을 결성, 2년간 초대 이사를 맡기도 했다. 최근에는 마을공동체라디오(99.1MHz) 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영월 공동체라디오 개국을 준비 중이다. 또 매주 한 차례씩 인근 마차고등학교와 주천고등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다.

김삿갓면에서는 수년 전 방문했던 아프리카 박물관을 다시 들렀다. 고씨 동굴 앞의 아프리카 박물관에는 다양한 아프리카 관련 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캠핑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아프리카 박물관 부지의 한쪽에 마련된 캠핑장에서는 귀여운 토끼가 강충강충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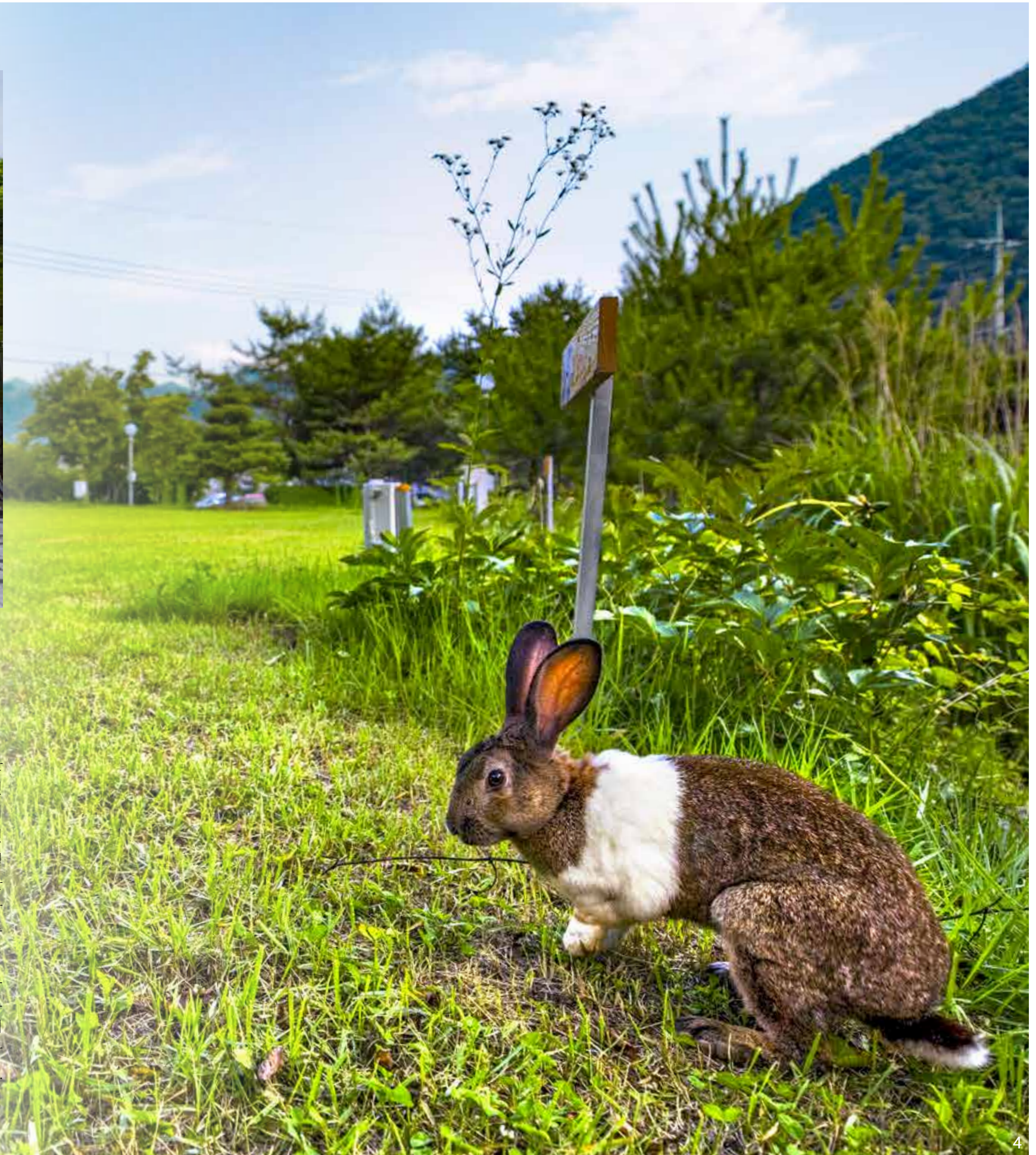


1 라디오스타 박물관 앞의 카페 온 에어 2, 3 라디오스타 박물관
4 아프리카박물관 캠핑장에서 만난 토끼



감성 자극하는 고장 영월

박중훈과 안성기가 열연한 영화 '라디오스타'는 영월을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물갔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수 최곤(박중훈)과 일편단심 그를 관리하는 매니저 박민수(안성기)의 명연기를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영월에서 DJ를 하던 최곤이 지역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영월 사람들과 좌충우돌하는 스토리는 영월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겨줬다. 마치 그곳에 가면 그런 가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말이다. 영화에서 봤던 그 방송국은 영월읍에 있는 옛 KBS 영월 방송국이다. 이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박물관이 됐다. 실제 박물관보다 더 매력적인 곳은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카페다. 외형이 옛날 빈티지 라디오 모형을 하고 있어 정겹다. 카페 주인장 말에 따르면 이 카페가 영월 사람들이 '가장 애정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바로 앞을 유유히 흐르는 서강을 높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은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블루베리 주스라고 했다.



서늘하다 못해 추운 봉래산산림욕장·별마로천문대



2

영월읍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 800m의 봉래산 정상에는 별마로천문대가 있다. 비록 비가 와서 천문대 관측을 하지 못했지만,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을 자랑하는 천문대는 상쾌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천문대 바로 밑에 있는 봉래산산림욕장은 팬데믹 시대 여가를 보내기 알맞은 곳이다. 낙엽송이 우거진 숲속에 처마가 있는 벤치와 나무 데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한여름에도 서늘함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낙엽송이 우거진 1.5km의 순환 산책로가 매력적이다. 곳곳에 산림욕을 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있다. 산 밑으로는 어라연 계곡을 휘돌아 온 동강의 물줄기가 손에 잡힐 듯 보인다. 모든 면에서 영월의 명산으로 부르기에 아깝지 않다.



1, 2 봉래산산림욕장 3 별마로천문대의 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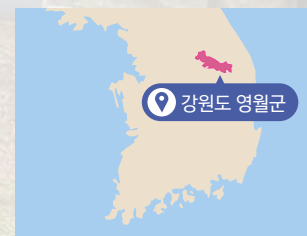
사육신 가운데 한 명인 성삼문은 1457년 단종 복위 계획에 실패한 뒤 처형장으로 끌려가며 지은 시에서 봉래산을 읊었다.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

단종 복위를 꿈꾸던 성삼문은 세조의 명에 따라 거열형으로 죽임을 당했다. 성삼문의 아버지는 물론, 세 동생과 네 아들도 모두 처형됐다. 성삼문은 죽은 지 200년만인 숙종 때 ‘충문(忠文)’이라는 시호를 받고 역적의 오명을 벗었다. 때마침 장마철을 맞아 저 멀리서 몰려온 먹구름이 산을 휘감았다 사라지는 모습이 신비로웠다. 성삼문이 낙락장송으로 이곳 봉래산에 있고 싶어했던 마음을 알 수 있을 듯했다.



>> Information



강원도 영월군

영월은 면적이 서울의 두 배가량 된다. 명소가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데다 남북으로 길쭉한 고구마 형태라 오가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동선을 잘 짜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마차리에는 게스트하우스(☎ 010-5384-0784)가 있어 저렴한 가격에 묵을 수 있다. 별마로 천문대(☎ 033-372-8445)의 개관 시간은 오후 3시다. 관람료는 성인 7천원, 청소년과 군인 6천원, 어린이(7세 이상) 5천원이다. 천문대를 오가는 길은 외길이라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주말에는 자전거 라이더들도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월의 참한 먹거리들

주천면에는 한우 브랜드인 다하누촌이 있어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다하누촌 중앙광장에는 원조 소머리국밥집과 다하누 본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주천 오일장에서는 배추 부침개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마차리에서는 모든 음식이 맛나지만, 특히 20년 전통 초원식당의 명태 코다리찜이 훌륭하다. 모든 반찬을 주인이 직접 만든다.



당신이 몰랐던 영주

소백산 자락인 경북 영주에는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며 즐길 거리가 많다.
황혼의 어스름 속 부석사와 소수서원
투어는 독특한 매력을 준다. 맑디맑은
내성천 위를 아슬아슬 걸어보는
무섬마을과 소백산에서 서식하는
불여우 탐방도 한여름 폭염과
팬데믹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1

매력적인 영주 구도심

소백산 자락의 내륙 도시 경북 영주는 손꼽히는 여행지는 아니었다. 떠들썩한 축제도, 관광지 인파도 없는 조용한 소도시였다. 저 멀리 경북 봉화와 울진, 영덕으로 가기 위한 교통 중심지 역할이 더 컸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영주 구도심의 오래된 건물들은 향수를 불러오는, 매력 있는 관광 포인트가

됐다. 일대에서 가장 큰 정미소였던 풍국정 미소와 지은 지 100년 된 영주제일교회가 대표적이다. 1941년 중앙선 영주역이 개설되면서 교통 도시로 발달한 영주는 최근 KTX-이음 개통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관광지로도 재조명되고 있다. 영주시는 최근 몇 년



2



3



4

- 1 깔끔하게 정비된 영주 구도심 거리 후생시장
- 2 전통적인 메뉴를 내놓는 보현식당
- 3 영주 시내의 소백 게스트하우스
- 4 게스트하우스 2층 테라스



1 마을센터와 조형물 2 일제 강점기 지어졌던 목조창고



3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5호 관사 4 주민이 재배하는 채소 5 관사촌 위쪽의 정자

동안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낡은 적산가옥과 간판을 깔끔하게 정비했다. 영광중학교 인근의 옛 영주역 철도 관사 건물들이 있던 이른바 ‘관사촌’ 지역이 요즘 뜨는 곳이다. 기관차 승무원, 역장, 검수원 등 철도 관련 종사자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지금은 모두 4채가 남아있다.

이 가운데 5호 관사를 찾아 양해를 구하고 내부를 둘러봤다. 85세 전옥녀 씨가 수십 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이곳의 지붕은 예전 그대로인 개량형 기와다. 일제 강점기 지었던 나무 창고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창고 앞에는 파, 고추 등 다양한 채소가 재배되고 있었다. 인근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한정식

집으로 활용되는 건물도 있다고 한다. 관사촌 주민들을 위한 마을센터 건물도 보인다. 마을센터 위쪽으로 올라가니 야트막한 언덕이다. 그 아래쪽으로 영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언덕 위에는 시민들이 하나 둘씩 느린 걸음으로 산보하며 여름 저녁의

한때를 즐기고 있다. 뒤쪽을 보니 한 달 전에 새로 들어섰다는 카페가 시민들의 산책 공간과 너무 잘 어울렸다. 마침 석양빛을 받은 뭉게구름이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1

1 부석사의 부석(浮石). 작은 돌들이 아래쪽에서 떠받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을 얻었다.
2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
3 황혼의 부석사



2



3

서늘한 밤에 즐기는 부석사 소수서원

영주 여행에서 천년고찰 부석사와 소수서원은 빼놓을 수 없다. 부석면에 있는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 (676년)에 승려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세운 사찰이다. 순흥면의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그 의미가 깊다. 영주시와 영주시관광협의회는 최근 해 질 녘 부석사와 한밤의 소수서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영주야(夜) 한밤에’ 여행 상품을 내놔다. 봉황산 부석사의 석양을 즐기거나 야간에 소수서원을 거닐며 오래된 건축물과 별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이다.

부석사는 심심하면 한 번씩 다녀오던 절이라 익숙했지만, 해 질 시간에 맞춰 가니 새로운 느낌이다. 같은 공간이지만 시간을 바꿔 또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느낌이 들었다. 이 상품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두레’ PD가 영주에 상주하며 기획했다. 천년고찰 부석사를 배경으로 한 장엄한 해님이 장면은 또 다른 감동을 줬다. 마침 비가 예보돼 있어서인지 인적이 끊긴 산사는 더없이 고즈넉했다. 야경 상품은 당일 코스와 1박 2일 숙박 코스가 함께 운영된다고 한다. 당일 코스는 늦은 오후 서울에서 출발해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둘러보고 밤에 돌아오는 일정이며, 숙박 코스는 당일 코스를 즐긴 후 영주 선비촌(한옥 체험형)에서 자고 다음 날 영주 죽계구곡, 무섬마을 등을 추가로 돌아본다.

1



2



1 고즈넉한 무섬마을 2 무섬마을에서는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준다.

무섬마을

무섬마을은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을 끼고 있는 물돌이 마을이다. 아름답고 흰 모래가 깔린 백사장과 물 맑은 내성천 위로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호젓한 시골 마을이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과 바깥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외나무다리 하나뿐인 오지였다. 외나무다리는 꽃가마를 타고 시집오는 신부를 맞이했고, 상여에 실려 나가는 망자를 배웅했다. 1979년 수도교가 들어서면서

본래의 기능은 없어졌지만, 2005년 마을 주민들이 복원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무섬마을에는 고종 때 의금부도사였던 김낙풍이 지은 고택 해우당과 반남 박씨의 무섬마을 입향시조가 지었다는 만죽재가 있다. 마을은 전체적으로 고요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곳이다. 민박집이 몇 군데 있고, 식당은 단 한 곳만 있다. 마을 입구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팽나무 아래 음료수와 컵라면, 옥수수를 파는 간이매점이다. ‘안서방’이라는 명찰을 단 예전 교련복 차림의 매점 주인 안용수 씨는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다. 팽나무 나이를 묻자 수백 년 된 것이 아니라, 의외로 딱 54살밖에 안 된 나무라

고 한다. 장인어른이 딸을 낳은 해 심었다는 것이다. “장인어른 덕분에 커다란 그늘이 생겨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너스레를 떠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오미자 원액을 넣은 주스를 한 잔 시켰다. 스타벅스에서 파는 것보다 달고 시원했다.



- 1 무섬마을을 오가는 20번 버스
- 2 무섬마을 야외 카페에서 파는 옥수수
- 3 야외 카페를 지키는 안용수 씨

2
3





2



3

1, 4 여우생태관찰원에서 생활하는 붉은 여우
2 여우생태관찰원 3 여우를 관찰하는 가족

‘불여시’ 사는 소백산

소백산 자락인 순흥면에는 꼬리 아홉 달린 여우를 떠오르게 하는 ‘불여우’가 사는 곳이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방언으로 우리나라 토종 여우인 불여우를 ‘불여시’라고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립한 여우생태관찰원이 그곳이다. 2016년 개관한 여우생태관찰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토종여우를 복원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여우는 한반도 토종인 붉은여우다. 과거에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서식했지만, 1960년대 쥐잡기 운동 등으로 인한 먹이 부족과 농약 중독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고 한다. 1981년 조사 때는 전국의 40여 개 지역에서 관찰됐지만 1989년 이후 종적을 감췄다. 지금 관찰원에 있는 여우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현재 50여 마리가량 된다. 붉은여우는 다 자라도 60~80cm, 무게는 5~8kg 정도에 불과하다. 소백산 산비탈에 마련된 생태학습장에는 많은 여우가 서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하루 다섯 차례 관람에서 3차례로 관람 횟수가 줄었다고 한다. 때마침 한 가족이 여우를 관람 중이었다. 여우는 설치류와 과일 등을 먹으며, 야산에 굴을 파고 산다. 여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은 여우가 무덤 주변에 굴을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덤을 훼손해 먹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가 완만한 데다 무엇보다 햇볕이 잘 들어 여우가 생활하기 알맞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찰원 정대호 박사는 “습기가 많은 곳보다 양지바른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덤가에 굴을 판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4





1

1 시원한 촉감의 인견
2 깔끔한 디자인의 인견



2

인삼과 인견

영주를 방문한 사람들은 지역 특산품인 인삼과 인견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인견은 나무나 종이 등을 화학 용제로 녹인 뒤 실로 뽑아내는 방식으로 만든 섬유를 말한다. 풍기읍의 특산물이기도 하다. 수년 전 인견 속옷을 구입한 덕분에 여름이 오면 그 고마움을 느끼던 터였다. 중앙고속도로 풍기나들목 인근인 봉현면에는 인삼과 인견 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쇼핑센터와 관련 제품 생산공장이 집합된 '영주일반산업단지'가 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인견 쇼핑단지가?'라는 의아함을 안고 풍기인견백화점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인견 제품을 쇼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풍기인견백화점 김순연 실장은 팔로 촉감을 느껴볼 것을 권했다. 인견 제품은 팔에 달라붙지 않고 스프링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나무 재질로 돼 여름에 특히 시원하며, 아무리 땀이 나도 달라붙지 않는다고 한다. 둘러보니 세련된 디자인의 고가 인견 제품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냥 가기 아쉬워서 속옷 몇 장을 샀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역시 산업단지 내의 인삼 공장



3

3 김정환 홍삼 1층의 카페
4 찌고 남은 잔뿌리와 굵은 삼은 피부 미용 등에도 활용한다.



4

이었다. 깔끔한 외관을 한 김정환홍삼 사옥이었다. 아래쪽에는 홍삼 카페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이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이유는 금요일마다 홍삼즙을 짜는 모습을 카페에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따끈한 홍삼 제품을 즉석에서 마실 수 있다.

기왕 들른 김에 홍삼 제품 생산 공정을 직접 보기로 했다. 김보미 부사장의 안내를 받아 방역복과 모자를 쓰고 공장으로 들어갔다. 마치 반도체 공장 출입 절차를 밟는 듯했다. 김 부사장은 홍삼을 찌고 난 뒤 남은 자루를 풀었다. 굵은 6년 차 삼을 담은 자루와 잔뿌리들만 있는 자루가 따로 보관돼 있다. 그는 "굵은 홍삼이 사포닌 성분이 더 많고 구수한 맛이 느껴진다"고 했다. 제품에는 굵은 삼과 잔뿌리가 6대 4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대기업 브랜드를 가진 제품들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김 부사장은 자랑스럽게 말한다. 카페로 돌아와 편안하게 여러 홍삼 제품을 맛봤다. 그는 이 카페가 소비자들과 기업을 잇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만수주조 막걸리 체험

바쁜 여정 가운데 시간을 쪼개 체험활동을 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영주 시내에 있는 만수주조는 막걸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느 막걸리 공장과 다를 바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일단 깔끔한 외형에 놀랐다. 마치 카페처럼 꾸며놓은 막걸리 만들기 체험장도 만족스러웠다. 비교적 짧은 업력을 가진 만수주조는 이보영 대표의 아버지가 2010년 창업한 곳이다. 74살의 나이에 막걸리 주조에 뛰어든 아버지 덕분에 이 대표는 늘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해야만 했다. 결국은 자연스럽게 주조업에 발을 들여 놓게 됐다. 단순히 지역을 대표하는 막걸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는 관광과 접목한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얻어 술빚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효체험학교 띄움'이라는 소기업도 창업했다. 띄움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제 직접 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할 시간이다.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고두밥을 손으로 주무르며 과정을 시작했다. 우선 효모와 고두밥을 섞는다. 이 대표는 이 과정이 효모를 깨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손을 씻고 세정제 소독까지 하는 것은 물론이다.

1, 2 효모와 고두밥을 비비는 장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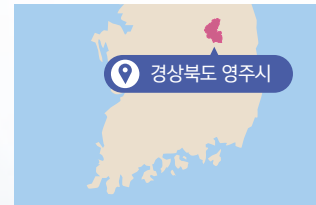
1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만수주조 외부 정원 2 막걸리 제조 시범을 보이는 이보영 대표

만,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그랬다. 코로나19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더욱 중요한 시대로 우리를 되돌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교통과 온라인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 만나는 사람의 수가 한정됐던 때로 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돼 이제 수도권권을 비롯한 대부분 도시에서는 저녁 식사도 2명으로 제한된 상태다. 내 앞의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다. ④

고형으로 된 효모를 손으로 잘게 부순 뒤 잘 주무르자 고두밥과 효모가 섞였다. 이어 효모와 섞인 고두밥을 20짜리 용기에 담았다. 약식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지만 대략 30분이 걸렸다.

이 대표는 이 지역 청년들과 함께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酒)디스트’라는 기업도 창업했다. 술과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라고 소개했다. 이 기업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두레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관광공사 대구지사는 KTX와 렌터카,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체험 결합상품에 대해 1인당 2만원의 체험비를 지원한다.

1대 1로 진행되는 수업 도중 의외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단체 관광객들은 많이 줄었지만,



승우여행사 ‘영주야(夜) 한밤에’ 투어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둘러보는 이 상품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한 승우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1인당 참가비는 당일코스 4만9천원(매주 금·토·일요일), 1박2일은 13만9천원(4인 1실 기준/매주 금·토·일요일)이다. 모든 여행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영주사랑 상품권을 증정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1회당 최소 12명부터 최대 21인까지 모집해 진행된다.

여행공방의 ‘내게와 영주’ 이 상품을 통해 여행을 오면 영주시는 1박2일 또는 당일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는 렌터카 이용권과 영주사랑 5천원짜리 상품권을 지원한다. 영주 당일 상품은 약 7만원이며, 영주와 봉화 1박2일은 14만원이다. 원래 10월까지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벌써 절반 이상 팔려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 Information



영주의 참한 먹거리를

문수읍의 카페 담원은 야외 테이블이 있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다. 영주시내의 중앙식육식당은 저렴한 가격에 맛난 소 갈빗살을 맛볼 수 있다. 39년 전통의 정도너츠는 정직한 재료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본사 건물에도 야외 테이블이 있어 안심하고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관사촌 언덕 위의 카페 브리즈는 흑임자 라떼가 맛있다.

